



"삼 년 묵은 새댁이 고콜불에 속곳 밑 말려 입고 간다"

뜻: 어떤 일을 오랫동안 기다려놓고, 막상 그날이 되자 아무 준비도 못 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준비 · 태만 · 임시방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삼	년	묵	은	새	댁	이	고	콜	불	에
속	곳	밑	말	려	입	고	간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삼	년	묵	은	새	댁	이	고	콜	불	에
속	곳	밑	말	려	입	고	간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사] [년] [묵] [은] [새] [댁] [이] [고] [콜] [불] [에] [속] [곳] [밑] [말] [려] [입] [고] [간] [다]

웹에서 보기

